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9호 [루게 제23436호] 주제100 (2011)년 4월 29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희천발전소를 일떠세우는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원 류금란, 경공업성 산하단위 교원 홍성희, 라선시 라진소학교 교원 김진희는 힘있는 지원으로 건설자들을 고무해주었다.

부장조각건설에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평양보병관 부원 강원철은 말거친 본분을 다하면서 발전소건설에서 혁명군대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 군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였다.

만경대승용차사업소 로동자 강성국, 평양호텔 로동자 김명숙은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아 돌격대원들의 로력투쟁을 물심방면으로 도와주었다.

영애군인들에 대한 당의 크나큰 사랑을 조급이나마 보답할 마음으로 신의주시 동상동 15인민반 김성진은 화선식식당을 적극 벌이고 지원함으로써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최고검찰소 문서원 정향라, 경흥상점 로동자 주수

영은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는 미풍을 발휘하였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평양시사회중앙관리국 산하단위 로동자 선우영일은 공사를 다그치는데 도움이 될 물자들을 마련하여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에게 보내주었다.

조국이 기억하는 참된 애국자로 삶을 빛내일 열의의 모란지도국 산하단위 로동자 송연희, 체육성 산하단위 로동자 최동철, 리정희는 건설을 돕는 일에 지성을 다하여 집단의 사랑을 받고있다.

원유공업성 자체상사 신의주시자재공급소 소장 변명식, 대외건설지도국 산하단위 통역원 윤진영, 삼석구역계급교양관 강사 최은순, 라선건축설계정보연구소 부원 한환진, 라선대농공사업소 로동자 김철호, 모란봉시계공장 로동자 한순녀, 출판지도국 자체상사 신의주공급소 부원 김명순, 신의주시당학교 로동자 오정임도 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발전소건설지원사업을 더 잘해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 에빠도르인사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중앙무역박람회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중앙무역박람회관

로씨야, 에빠도르인사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중앙무역박람회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중앙무역박람회관

본사기자

전인민적총공세로 혁명적대고조의 목소리를 더 높여 올리자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현실

강선에서 새로운 대고조의 봉화가 떠오른 2년 남짓한 기간 300여명의 로력영웅 배출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하에 이 하늘아래,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총공세로 힘있게 벌이며 영웅조선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켜 주신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년 남짓한 기간에 인민경제 각 분야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300여명의 로력영웅이 배출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는 영웅의 시대입니다. 영웅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것을 요구합니다.》

내 나라, 내 조국에 강성대국문패를 달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내 나라 전체 인민을 불리워오시고 대고조전선의 맨 앞장서서 애국헌신의 초강도강령을 이끌어 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걸음에 마음도 뜻도 숨결도 합치며 내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선의 봉화가 떠오른 이후 지난 2년 남짓한 기간 일터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었다. 그 나날에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연구사 리재경동무는 강철로 땅을 높이 받들려는 투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안고 우리 식의 현대적인 초고전력기로를 설계하는데 헌신분투하여 기업소에서 강제생산을 높이고 나라의 흑색금속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 기여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호를 수여받았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투쟁속에서 커다란 공로를 세운 영웅적위훈을 수여받은 선군들은 원산청년발전소 건설자들도 있다.

강원도의 일군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선진시대와 더불어 같이 빛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장소물인 원산청년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하였다. 그 나날에 박정남, 김명철, 리일국, 최현원, 유만수동무들은 당정책집행위원회의 투쟁기공을 높이 발휘하면서 발전소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내는데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공화국국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호를 수여받았다.

국가과학원 내화학연구소 실장 리용남, 대동청년영웅광산마그네사크림카분공장 소성공리호철동무들도 로력영웅호를 수여받았다. 이들을 비롯한 마그네사크림카생산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사, 로동자들은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새로운 마그네사크림카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하는데서 영웅적위훈을 세움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우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몸소 등산길을 개척해주시고 향산을 인민의 유원지로 더욱 훌륭하게 꾸릴 일념을 안고 불굴의 정진력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묘향산등산도로를 훌륭히 완공하는데 앞장선 김준섭, 최원세, 강은숙, 김명철, 사성일, 김성상, 안철준동무들에게도 로력영웅호를 수여하였다.

앞선 제반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쏠려나오는 유원지로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2, 8직동청년단광광 12명, 제반중대장 최홍길, 최성청년단광 8명 소대장이었던 전광철동무들도 선

군시대의 영웅으로 그 모습을 빛내고있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주체철을 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주체생산지대를 확립하고 야금공업력사에 일찌기 있어온 데 없던 일대 번혁을 안아오는데 크게 공헌한 전룡국, 리철호, 전정철, 정인준, 전광봉동무들도 영웅의 삶을 빛내고있으며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인민의 훌륭한 사상정신세계와 고상한 품도를 남김없이 보여준 무역집배 《지성5》호의 전선장인 홍순경, 전 기판장인 신명환동무들도 조국과 인민의 기여속에서 영웅의 모습으로 살아있다.

지난해에는 인민경제 주요전투장에서 집단적으로 로력영웅이 배출됨으로써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이 다시금 온 세상에 시위되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무연탄가화에 의한 비로성산공장을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동시에 21명의 로력영웅이 나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본사기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순천지구 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발굴을 많이 마련하고 운반능력을 높이며 탄광설비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2, 8직동청년탄광과 청성청년탄광에 나간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탄부들속에 들어가 석탄장산으로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화선식정지사업을 힘있게 벌여 고도의 양산열의를 적극 불리워오기 하였다. 또한 경막장에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 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하고있는 본선벨트르베아개건공사에서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게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올해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새 탄발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이미 2, 8직동청년탄광 강성강에 능력이 큰 새 탄발을 조성하여 석탄장산의 물과구를 위한 벨트르베아와 사슬르베아 부수에 필요한 부분품생산을 힘있게 다그쳐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탄광들에 필요한 펌프생산에도 힘을 넣고있다.

신창청년탄광에서는 운반조건을 개선하고 전차들의 만가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내미는 한편 많은 탄차를 자체로 마련하기 위해 통이 크게 일꾼을 벌리고있다.

탄광들의 일군들은 석탄생산량이 늘어나고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조건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면서 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으로 탄부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의 지밀한 조직사업과 이신적의 혁명적기공에 의하여 석탄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있다.

지난 1, 4분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련합기업소야마 탄광들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막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이고있다.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련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탄광들에서는 날마다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특약기자 리혁철

농촌들에서

각지 농촌들에서는 논밭갈이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높은 책임감을 안고 분발해나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는 같이실적은 1, 4배, 밭갈이실적은 1, 2배 이상 장성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준비를 잘하는것은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이 분비한 남새조건에서도 논밭갈이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낼 높은 목표밑에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 있다. 협동농장들을 맡고 내려간 일군들이 농장원들속에 논밭갈이를 앞장세워 논밭갈이를 촉진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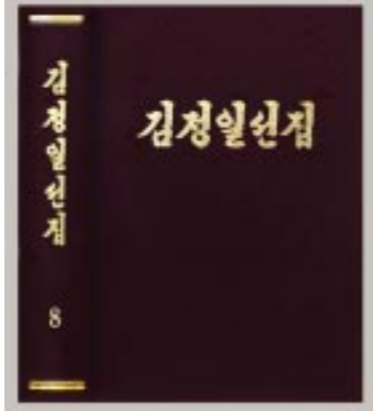
혁신의 불길은 함경북도의 농촌들에서도 논밭갈이가 한창이다. 박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트랙토르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잘하여 만가, 만부하를 보장함으로써 논밭갈이에서 도적으로 앞장서나가고있다. 룡천군, 동림군, 운전군들에서는 트랙토르들의 이용률을 높여 매일 많은 면적의 논밭갈이를 해체하고있다.

본사기자 강명근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김진명 찍음

《김정일선집》 제8권 (증보판)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집대성한 《김정일선집》 제8권 (증보판)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선집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77년 1월부터 1979년 3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연설, 담화, 결론 등 44건의 로작들이 수록되어있다.

《현시기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도시, 군당위원회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황을 일으키자》를 비롯한 로작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이 제시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들에서 전투력을 더욱 높이며 특히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나가기 위한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다시말하여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들에서 사람과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부들과의 사업인것만큼 그들을 늘 교양하며 혁명적조직생활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시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로작들에는 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기 위한 방도들이 천명되어있다.

위대한 당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없애고 항일유격대식정치사업방법을 구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전방을 일으키는것과 함께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할데 대한 사상리론이 명시되어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선전선동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현시기 인민군대 당정치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전연부대 군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들에서 인민군대의 정치적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관한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들에서 인민군대는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라는것을 천명하시고 우리 당이 전군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구호를 내세우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로작들에는 전군에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군인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절충성같이 보위해나갈도록 할데 대한 과업들이 제시되어있다.

로작 《보천보전투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본이다》, 《삼지연의 기념비를 웅장하게 잘 건설할데 대하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의 역사적의의와 혁명전투교양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 삼지연 대기념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건립하기 위한 방도들이 밝혀져있다.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정명하기 위한 과업이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전당, 전민을 불러일으켜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 《전당이 동원되어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등의 로작들에 반영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이것이 우리 당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혁명적구호이며 당사업의 총적방향이 라는것을 밝히시고 제2차 7개년 계획수행에 들어가는 첫해전투를 벌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대한 사상리론을 집대성한 《혁명연극의 새시대 열여섯이야기 한다》,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혁명극의 (OPI) 공연의 높은 수준을 견지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들도 선집에 들어있다.

로작들은 영화와 가극예술부문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연극예술부문에서도 혁명적전환을 가져오며 특히 혁명연극 《상황감》 창작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었다.

주체적무용요기법을 완성하며 음악무용수품들과 시문학의 형상을 특색있게 하고 미술작품창작과 영화보급사업에서 전방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선집에는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기공을 세우며 건설에서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구현할데 대한 문제, 로동행정규율을 강화하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과업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해답을 주는 고전적로작들이 편집되어있다.

《김정일선집》 제8권 (증보판)에 수록된 로작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고당당성과 독창성, 생활력이 확증된 혁명적 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력도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사상리론적투기기로 된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시말씀을 높이 받들고 단천항건설을 전격적으로 다그친다

룩 해운성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불가능을 모르는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 자랑찬 성과, 확고한 전망

우리는 지금 단천항건설의 한복판에 서있다. 얼마나 궁지 높은 화룡이 여기 동해기슭에 펼쳐진것인가. 오랜 세월 파도 사나운 바다의 물결만이 모래밭을 적시던 곳에 눈부러 아득히 방파제가 뻗어왔고 마침내 단천항은 자기의 웅장한 모습을 완연히 드러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은 인민대중의 정신력의 분출입니다.》

조선은 결실하면 한다는것을 세상에 파시하며 조국의 귀중한 재부를 창조해나가고있는 특혜운성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따라배워야 하는가.

어제도 오늘도 공격전의 기수답게

방파제공사는 항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공사의 하나이다. 하지만 공사에 참가한 특혜운성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종전같은 10년이상 걸려야 한다면 이 공사를 불이 번쩍 내게 다그쳐 방대한 일감을 해체했다. 1년 남짓한 기간에 접두른 날바다에 추겨쳐온 드넓은 방파제위에 서니 인간의 힘에 대한 놀라움에 앞서 눈굽이 뜨겁게 젖어든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들어선 건이었던가. 어떻게 이룬 투쟁의 향유를 맡아왔던가. 단순히 하나의 항을 일떠세우는 공사가 아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부

강조건설철칙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고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었다. 공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맞게 특혜운성 당위원회에서는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날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승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성이매단위들에서 능력있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돌격대를 꾸리고 건설장에 달려와 전투진지를 차지하였다. 현장에 달려온 특혜운성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가설건물을 짓기 위해 앞서 당이 결실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글밭을 새긴 구조물을 바다가모래밭위에 우뚝 세우놓았다.

공사초기 발파공사때에 있는 일이었다. 불리한 압질조건으로 하여 종전의 방법대로 발파를 하면 재시각주변의 살림집들을 비롯한 많은 공공건물들이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힐수 있었다. 발파를 하는가하는가 하는 긴급한 정황이 조성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성당위원회일군들의 지령에서 올려나온 제침은 무엇이었던가.

“이 공사가 과연 어떤 공사인가. 우리가 공사일정을 늦추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시간이 그만큼 쪼들린다. 우리의 심장속에 승리의 열쇠가 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이런 불굴의 정신력을 의해 끝끝내 합리적인 발파방법이 탐구되어야 되며 공사는 중단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휘부일군들이 공사를 립체

적으로 내밀기 위한 전투적인 목표를 내세운 이야기는 들을수록 감동적이다. 방파제공사와 생산건설건설, 새로운 공법에 의한 방대한 부재생산 등 전반적인 공사를 일정별에 따라 단 한순간의 드림이 없이 립체전의 방법으로 내밀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운것만 보아도 이만 지휘부일군들의 담력과 배짱이 보통이 아니라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들이 내세운 전투목표는 결코 물질기술적조건을 타산한 목표가 아니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일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얼마든지 날바다를 길들일수 있다는것이 지휘부일군들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립장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경제건설목표를 받들어 지난 기간 조국의 만년재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공격적인 기수답게 맡은 일을 충실히 해준 특혜운성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참모리는 이렇게 시작부터 달랐다.

날바다를 길들이는 조선의 힘

지상공사와는 달리 날바다를 길들이는 해상공사는 자연 대인간의 가장 치열한 격전이라고 말할수 있다.

판란하는 파도와 세찬 폭풍, 천변만화는 해상기후 등 공사조건은 참으로 불리하였다. 이런 어려운 조건은 항건설에서 공식처럼 굳어진 기수관념

을 버리고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것을 요구하였다.

수십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리고 방도적인 문제들이 거듭 토의되었다. 이 과정에 골조식기초부재에 의한 새로운 공법이 창안되었다. 빠른 기간에 방파제구조체조립을 완성할수 있는 이 공법은 사실상 너무나도 대담한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에 도입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방파제의 안전성여부를 두고 여거지거우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이런 때 돌격대책임일군들의 립장은 명백하였다. 신념의 기초만 굳건하면 못해낼 일 없었다는것이 그들의 확고한 립장이었다.

수십만㎡에 달하는 막들과 골재를 보장하고 하나의 중량이 수십이나 되는 수천개의 대형부재들을 단 몇달동안에 생산하기 위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형남배수리공장대대 굴진소대의 돌격대원들이 공사에 필요한 막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혁신의 발파속도를 높여 올려가고있을 때 부재생산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은 양생기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바깥에 바다기공에서 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물동수송을 맡은 기동력단 운수중대, 형남배수리공장대대, 향남운수중대의 수송진사들은 내려다보기조차 아찔한 가파로운 경로를 넘나들며 하루 천여리 수송길을 달리고 또 달려갔다.

위훈의 자욱은 땅위에만 새겨진것이 아니다. 김푸른 날바다에서 아슬아슬한 고비들을 수없이 헤쳐넘으며 투쟁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해상대대의 전투원들. 한치도 한치 깊고 깊은 바다속에 보이지 않는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는 잠수공들의 투쟁이야기는 또 얼마나 감동적인것인가. 사납게 밀려드는 파도, 벼속까지 스며드는 강추위속에서 돌격대원들이 창조한 영웅적위훈에 대한 이야기를 다하자면 끝이 없다.

돌격전에 나선것은 비단 건설장에 달려온 전투원들만이 아니었다. 특혜운성 정무원들과 성이매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과 마음이 단결되어 향하였고 이들의 아낌없는 후원속에 건설장은 그야말로 불도끼나로 번하였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있어도 성일군들과 정무원들, 아예 단위 투쟁원들은 늘 건설장과 단결전선에 서있었다. 오직 하나의 신념과 의지로 고쳐쓰는 이런 미미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성의있는 지원이 있어 건설자들은 1년 남짓한 기간에 방대한 방파제구조체조립을 끝내고 부두공사와 건축공사의 많은 몫을 해체해왔다.

사람들이여,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려거든, 강성대국의 그날을 향하여 비약의 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조국의 긍지높은 현실을 체휼하려거든 여기 단천항건설장에 와보시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외 요구라면 단숨에 산도 옮기고 바다도 매우는 우리 인민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조국의 면모는 날을 따라 번모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사실의 전투적업무를 받들고 대고조건설속도를 높이고있는 특혜운성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해 지금 단천항건설의 면모는 하루가 다르게 일신되고있다.

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은 항건설에서 기존관념을 완전히 버리고 지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립체전을 벌임으로써 짧은 기간에 사람들의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가장 어려운 파제로 나섰던 해상작업들이 기본적으로 끝나게 되었다. 연천수백㎡에 달하는 방파제구조

체조립이 완전히 끝나고 여러 부대가 자기의 자태를 선명히 드러냈다.

현격한 건설성과는 해상에서만 기록된것이 아니다. 해상공사와 함께 지상에서의 건축공사가 립체적으로 추진되어 대항화물창고를 비롯한 여러 건물들이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수천㎡의 수용이 좋은 나무들이 심어져 항주변에 푸른 숲이 펼쳐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금 공사는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방파제내항기성조립을 외딴다 끝낸 청진항만건설사업소대대, 흥남항만건설사업소대대의 돌격대원들은 그 기세를 높춤이 없이 방파제의 항물부재생산 및 조립, 방파제상부콘크리트

체조립이 완전히 끝나고 여러 부대가 자기의 자태를 선명히 드러냈다.

현격한 건설성과는 해상에서만 기록된것이 아니다. 해상공사와 함께 지상에서의 건축공사가 립체적으로 추진되어 대항화물창고를 비롯한 여러 건물들이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수천㎡의 수용이 좋은 나무들이 심어져 항주변에 푸른 숲이 펼쳐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금 공사는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방파제내항기성조립을 외딴다 끝낸 청진항만건설사업소대대, 흥남항만건설사업소대대의 돌격대원들은 그 기세를 높춤이 없이 방파제의 항물부재생산 및 조립, 방파제상부콘크리트

과일을 앞당기는 투쟁의 기수들

나를 따라 앞으로! 청진항만건설사업소대대 대장 김광수동무는 대대앞에 어떤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어도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아낌없이 수행하고있다.

북방파제구조체조립공사가 대대앞에 맡겨졌을 때에도 그는 대대의 앞장서 부재생산과 조립진도를 능숙하게 지휘함으로써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수송길에 새겨가는 위훈의 별

기동력단 운수중대 중대장 박정덕동무는 싸우는 고지에

관악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매일 같이 먼 수송길을 오가며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조국을 위해 새겨가는 이만 수송진사들의 애국의 자욱은 나날이 일신되는 단천항건설장의 모습과 함께 위훈의 별이 되어 빛나고있다.

성실한 노력가

설계사공분과 과장 공출섭씨가 정철일동무는 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길 일념으로 설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기술지도사역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그는 새로운 부재시공방법을 창안도입하여 공

사의 속도와 함께 구조물의 질을 다같이 높일수 있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광심으로 고여가는 초석

해상대대 4중대 잠수소대소대장 김명철동무는 방파제공사로부터 시작하여 부두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다밑에 조국을 받드는 초석마냥 위훈의 자욱을 새겨여가고있다.

그는 공사과정에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부재조립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조립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여기는 1호부두공사장이다. 공사장의 곳곳에서 붉은가사채가 나뭇가지 방수선전차에서는 대고조건설로 부르는 힘찬 노래소리가 울려나온다. 지금 여기서는 해상대대와 흥남항만건설사업소대대의 돌격대원들이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 넘쳐 최우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공사가 벌어지는 바다의 한쪽에서 떠있는 기동기계가 화물자동차에서 수십이나 되는 부재를 넘겨받는다. 신호공리기 일동무의 신호에 따라 집체같은 부재가 공중에서 움직인다. 《좌로!》 《우로!》

기동기계의 갑판우에서 부재에 련결된 바줄을 능숙한 솜씨로 조절하는 돌격대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신호공과 선장이 긴장한 눈빛을 주고받는다. 얼마후 부재가 서서히 바다물속에 잠기 시작한다.

《우리는 방파제공사때부터 지 부재를 리용하여 해상에서의 구조물조립시간을 최대로



모내기를 제철에 결속하여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자

강서구역 농업근로자들의 열기모임 진행, 전국의 농공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경쟁 호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산리에서 모내기를 하신 4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강서구역 농업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8일 청산리농장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리명길 농공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강서구역 농업근로자,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강서구역농공맹위원장 하용남의 보고에 이어 청산리농공맹위원장 판리위원장 윤춘화, 잠정협동농장 초급농공맹위원장 최동규, 약수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안전진이 토론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꽃피워 가시는 경에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60(1971)년 5월 청산리를 찾으시어 모내기를 하시면서 농장원들이 나라의 쌀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구역안의 농업근로자들은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시며 청산리에 모내기를 하신 40년경에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올해에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알곡증산투쟁을 더욱 파강히 전개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내기는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한해농사의 성과여부는 모내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안고 모든 농사일을 끈기있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장,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줄대같이 실한 벼모를 키워내며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는 등 모내기의 질을 높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기계화초병들이 트랙터와 모내는기계의 실용성을 높여는같이와 씨메기기를 확고히 알세우며 모내기에서 련일 커다란 실

적을 기록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물관리공들과 시비공들의 역할을 높여 물관리와 비료치기를 잘하여 농업의 요구대로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초급일군들이 여러가지 영농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 맞게 로력투쟁을 합리적인 것으로 짜고들며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새차게 타오르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공맹조직들과 일군들은 들끓는 협동법들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괄발휘하기 위한 경제생활투쟁을 활발히 조직하며 이신작적으로 대중을 이끌어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장포진은 나의 포진이다!》라는 구호를 들고 올해농사의 돌파구를 열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벌일것을 전국의 농공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였다.

모임에서는 사회주의경쟁요강이 발표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강제편직공장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앞장에서 소치치며 달려나가고있다. 최근 몇해동안에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 이룩된 성과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하나의 문제점을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과하게발견의 중요성과 의의를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피부생산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이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수행정형을 로해하기 위하여 공장초급당서기 강봉찬동무는 그날도 작업현장에 내려갔다. 그날 그는 제단작업반에서 하나의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한 처녀종업원이 제단설비를 분리하여놓고 무엇인가 팔뚝을 생각하고있었다. 초급당원 일군은 그에게 다가갔다. 손가락을 느끼고 일어서는 그의 눈에는 제단칼집이 튀겨져있었다. 이해하는 초급당원에게 그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공장에서 기술혁신이라고 하면 대체로 기동기계를 비롯하여 기계화제시기가 많이 수행되는것으로 되어있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혁신과제도 용량 이들에게 주었다. 간혹 종업원들속에서 창의고안을 비롯한 기술혁신안이 나와도 고급기능공들속에서 나와야 믿음이 가고 실적이 있는것으로 인정되고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기술혁신은 결코 기능이 높고 경험이 많으면 년한이 있어

현지 보도

단축하고있습니다.》

동행한 일군인 강종관동무의 말을 들으며 공사장에 차넣는 비약의 승물을 느끼는데 신호호기에 손에 대회기에서 부재조립위치를 알리는 잠수공의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신호공이 그의 말을 받아 기동기계에 련속 신호를 보낸다.

깊은 바다물속에서 깨끗한 방향을 바쳐가며 한치한치 부두의 전진로를 개척해나가고있는 잠수소대의 미미한 잠수공들, 그들은 완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탐구하여 현실에 도입하고있

시간이며, 우리를 따르라!

1호부두공사장에서

다고 한다.

《저 부재가 바로 종방항으로 맞물려 만든 부재입니다. 우리는 저 부재를 리용하여 구조물조립이 속도와 함께 질을 최대로 보장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동행한 일군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있는 사이에 화물자동차가 또 다른 부재를 싣고 기동기계에 옮겨준다. 불과 몇분 안되었는데 대화기에서 또사 잠수공의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있는 사이에 화물자동차가 또 다른 부재를 싣고 기동기계에 옮겨준다. 불과 몇분 안되었는데 대화기에서 또사 잠수공의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좋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방법론 있게

강계편직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아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물론 기술혁신수행에서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 고급기능공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 실력에 평등하고 비싼만큼 애국시간을 얻어낼수 있는것이 아니다. 이것을 모든 제단설비들에 받아들이고야 할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절약되었는가.

대중적기술혁신을 위한 방법론을 확립할수 있는 방법론을 확립하였다.

공장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나이 어린 처녀가 이런 착상을 해내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설비를 직접 다루는 과정에 또 생산능률을 높여려는 진지한 탐구끝에 불합리한 점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극복방안도 찾아내게 되었다는 그의 소박한 이야기를 들으며 초급당일군에게는 느껴지는바가 많았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공장에서 기술혁신이라고 하면 대체로 기동기계를 비롯하여 기계화제시기가 많이 수행되는것으로 되어있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혁신과제도 용량 이들에게 주었다. 간혹 종업원들속에서 창의고안을 비롯한 기술혁신안이 나와도 고급기능공들속에서 나와야 믿음이 가고 실적이 있는것으로 인정되고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기술혁신은 결코 기능이 높고 경험이 많으면 년한이 있어

모든 종업원들이 다 참가한 속에서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하여 기술혁신이 결코 신비한것이 아니며 누구나 마음먹고 달려들면 능히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주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실례를 다 꼽자면 끝이 없다. 공장적인 관성속에 종업원들속에서 제기된 많은 창의고안이나 착상이 생산에 도입되었고 그것은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권과 창의고안중서, 새 기술도입증을 수여받았으며 생산능률이 1.4배로 상승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의 평균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고급기능공대렬은 70%로 늘어났다.

이 비약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대중을 기술의 주인, 창조의 명수로 키울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열쇠도 바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있다는것이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만도 백수십명이 발명

주체예술의 아름다운 화원속에 빛나는 삶

문화성 부상이었던 김일성훈장수훈자, 인민예술가 송석환동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 한 령도아래 인류문명에 특기할 사적으로 아로새겨진 20세기 문예부흥기를 가슴벅차게 펼치고 세기의 언덕을 넘어 온 누리에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는 주체예술.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판을 북돋아주고 강대국수령의 봄을 소리쳐부르는 주체예술의 아름다움과 화원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충정의 한결을 한층 더 빛낸 문화성 부상이었던 송석환동무의 삶도 빛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의 뿌리가 되자, 이것이 오늘 우리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인생관입니다.》

40년전 세계각국에 예술사를 뒤흔들며 각국혁명의 첫 포성으로 높이 울려 퍼진 혁명가곡 《피리바다》를 비롯한 5대혁명가곡들, 우리 식 민족가곡 예술의 본보기 민족가곡 《춘향전》, 새 세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걸작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주체예술의 보물고고 풍부하며 조신의 지광으로, 민족의 국보로 이룩되는 로동당시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명작들을 창작창조하던 과정은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송석환동무를 깊은 감회속에 추억하고 있다.

우익한 고지식하고 성실한 예술가.

당정책판철에서는 한치의 드림도 없는 완강한 실천력의 소유자.

높은 자질과 풍부한 지식으로 주체예술발전엔 큰 공로를 세운 실력가형의 일꾼.

송석환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온 손길에 성장한 혁명가곡 《피리바다》의 첫 지휘자였다.

1960년대말 어느 한 예술단체에서 창조하고있던 가곡을 지도해주신 그날에 가곡을 지휘한 송석환동무가 전문지휘공부도 안하고 나이드는데 많은 작품을 지휘했다고 하시면서 현시대 인민들의 미감을 충족시킬 새로운 형식의 가곡을 창조해야 한다고, 새롭게 창조할 가곡을 지휘하자면 지휘자가 각국혁신에 대하여 누구보다 민감해야 하며 연구를 깊이 해야 한다고 눈을 띄워주시던 송석환동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은 정녕 끝이 없었다.

우리 식의 가곡을 만드는데 한 어버이수령님의 승인과 뜻을 받들어 주체가곡역사에 중추부를 찍고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혁명가곡창조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송석환동무를 혁명가곡 《피리바다》의 지휘자로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또 어느날에는 아침부터 가곡창조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던 송석환동무에게 도다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으며 그날 송석환동무의 감격은 절정에 달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공연이 끝난 후 폭풍같은 환호가 장대를 뒤흔드는 속에 무대로 올라오셔서 성과를 축하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가곡을 지휘한 동무라고 말씀드리며 송석환동무를 선함으로 내세워주시었다.

그날 저녁 각국창조성원들과 뜻 깊은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를 몸가끼이 붙어주시고 짧은 시간내에 판공을 보장하리라 수고하였다고, 판공이 비교적 잘 되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번엔 창조하는 혁명가곡은 종래의 가곡형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기 때문에 지휘자는 용감 이런 점을 깊이 연구하고 파악하여야 하며 작곡의 양상과 주체사상과 맞게 형성되도록 명백히 가지고 지휘봉을 들어야 한다고 따듯이 일깨워주시기도 하시

었다.

창조와 혁신의 활력을 끊임 없이 부여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사로온 손길에 떠받들려 송석환동무는 불같은 사색과 탐구,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면서 혁명가곡창조 완성에 온 힘을 다 바쳐갔다. 그날에 넘쳐넘는 구상과 형상에서 혁신을 일으켜 감동적이며 환상적인 음색을 얻어내어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지적적인 지도, 세심한 보살핌속에 훌륭히 창조된 혁명가곡 《피리바다》의 첫 공연을 어버이수령님께 보여드린 그날 송석환동무의 감격은 절정에 달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공연이 끝난 후 폭풍같은 환호가 장대를 뒤흔드는 속에 무대로 올라오셔서 성과를 축하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가곡을 지휘한 동무라고 말씀드리며 송석환동무를 선함으로 내세워주시었다.

그날 저녁 각국창조성원들과 뜻 깊은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를 몸가끼이 붙어주시고 짧은 시간내에 판공을 보장하리라 수고하였다고, 판공이 비교적 잘 되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번엔 창조하는 혁명가곡은 종래의 가곡형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기 때문에 지휘자는 용감 이런 점을 깊이 연구하고 파악하여야 하며 작곡의 양상과 주체사상과 맞게 형성되도록 명백히 가지고 지휘봉을 들어야 한다고 따듯이 일깨워주시기도 하시

서 주체조선의 예술인으로 기술이 성장한 나날인 동시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한층더욱 변함없이 충직하게 받들어갈 신념을 더욱 억세게 다진 인생의 전환적절이었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높은 실력을 떠나 혁명전사의 고결한 충정을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당의 믿음에 의하여 피리바다가 단 지휘자, 예술부총장을 거쳐 국립민족예술단(당시 평양예술단) 단장으로 사업하던 송석환동무가 민족가곡 《춘향전》창조의 나날에 더욱 절감하였던 삶의 진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빛내어 꽃피우시기 위하여 각국창조사업을 예술단에 맡겨주시고 혁명령으로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자주 현지에 나오셔서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날 가곡은 노래가 좋아 한다고 하시면서 노래창작에서 절리겠다는 문제를 하거나 바로잡아주시며 가곡이 가사도 좋고 곡도 좋은 걸작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송석환동무는 한 번 한 동무라고 말씀드리며 송석환동무를 선함으로 내세워주시었다.

실력이 없으면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어내갈수 없고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는 생의 좌우명인 송석환동무로 하여금 하루, 한 시간, 한초를 더욱 불같이 살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송석환동무와 오래동안 함께 일해 온 문화성의 한 일꾼은 이렇게 회상하였다.

《송석환동무는 정말 많은 일을 한 실력가였습니다. 많은

노해인가 국립민족예술단에서 진행하는 민족가곡 《춘향전》 공연을 앞두고 지휘자가 병으로 출원하지 못할 긴급상황이 조성되었을 때에도 단장으로 일하던 송석환동무가 지휘를 맡아나섰습니다. 그가 이렇게 선뜻 나섰을 수 있는 것도 높은 실력이 안받침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연시작시간이 가까워 가곡의 조작성만 한번 들어보고 무대에 나선 송석환동무는 자신만한 자세로 지휘를 해나갔습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창작가, 배우들이 온몸이 땅에 젖은 송석환동무를 둘러싸고 축하 수고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할하던 모습들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실력의 탑을 높이 쌓아왔지만 송석환동무는 언제나 만 족을 물었다.

은 세상 사람들이 경탄을 금치 못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창조사업과 공연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같은 투쟁을 벌리던 나날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송석환동무였다.

해당 일꾼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에 갈 때마다 잠시 간을 아껴가며 책을 읽었고는 송석환동무의 열정적인 모습은 보곤했다는 이야기며 집의 서가에서 딱 차있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을 볼일이 일 정도로 보고도 보았다는 이야기로 보더라도 감동적이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창조와 공연보장에 대한 지도를 담당한 책임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그처럼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수행하여 집단의 한결같은 감탄을 불러일으킨 송석환동무의 높은 실력은 지난해의 공연때 새로

펼쳐진 5장 《천신아리랑》에 대한 창작과정에도 뚜렷이 발휘되었다.

그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예술작품은 없다. 그러나 송석환동무는 이렇듯 오로지 한마음 위대한 장군님의 승인과 뜻을 확실히 꽃피우기 위한 헌신의 길, 보답의 한결에서 다함없는 충성과 높은 실력으로 주체예술발전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남기고 우리결을 떠나갔다.

불치의 병으로 진단받은 그 때에도 웃으며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았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빨리 병을 털고 일어난 일을 해야겠다는 말밖에 들었던 송석환동무.

부리를 떠나 거목을 생각할 수 없다.

세상에 자랑높은 우리의 주체예술이 거목이라면 그 밑에는 창공을 저를 뚫고 솟아는 아름다운 나무를 억세게 떠받치고 쉬임없이 영양소를 주는 뿌리처럼 자신의 은과와 지혜와 정열을 장그리 바친 송석환동무와 같은 수많은 애국자들의 피와 땀이 진하게 스며들었다.

당이 안겨준 김정일성훈장수훈자, 인민예술가의 값높은 영예와 더불어, 주체예술발전의 빛나는 어둠과 오늘, 휘황한 미래와 더불어 조국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참된 혁명가.

우리의 몸과 마음 다 바쳐 위대한 선군명장을 높이 모신 어머니 내 조국을 억세게 떠받드는 뿌리가 되자.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신념의 길에서 한생을 주체예술발전의 밑뿌리로 아낌없이 물은 송석환동무의 고결한 삶을 더듬으며 더욱 가슴뜨겁게 되게 되는 시대의 애마리이다.

본사기자 오철 룡

재령군 인민병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병원, 진료소들이 꾸려져있으며 세계에서 으뜸가는 인민적인 보건제도가 서있습니다.》

재령군 읍지구의 중심에 자리잡고있는 재령군인민병원, 여러층으로 된 외래병동과 다층으로 된 외래병동과 여러층의 부속건물로 이루어진 병원은 오늘 군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이 병원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깃들여있다.

얼마전 재령군을 찾았던 우리에게 병원일꾼들은 해마다 4월이면 군내 주민들과 로일꾼들의 가슴마다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감사의 정이 더욱 새차게 물결친다고 하면서 이런 사실을 전해주었다.

수신년전 4월 어느날이었다. 재령군을 현지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군인민병원이 읍지에서서 좀 떨어진 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 당청일꾼들을 부르셔서 인민병원이 왜 읍에서 멀리 떨어진 터에 있는지를 물어보고는 그곳에 있기때문에 위생에도 좋지 않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병원을 읍중심으로 옮기는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하여 인민병원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하겠다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군인민들은 이미 지어진 병원이라 어쩔수 없는 일로 여겼던 자신들을 자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러한 일꾼들에게 병원을 반드시 옮겨야 한다고, 병원을 옮기되 먼저 한주일에 군안의 주민들에게 군인민병원을 어디로 옮긴다는것을 알려주고 글도 써붙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병원을 옮기는 방법까지 하나 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인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는 문제에서는 사소한 에누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속에 재령군인민병원은 그후 읍지구의 중심에 자기의 위치를 정하게 되었다. ...

들수록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위대한분들의 사랑속에 살아가는가를 후회하게 되게 하는 감동깊은 이야기였다.

인민들에게 편리하게 자리를 옮긴 재령군인민병원은 그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여러차례 걸쳐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고 군안의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거점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최근에만도 이곳 로일꾼들은 심전계의 컴퓨터화를 실현하는데 비롯하여 의료설비현대화에 힘을 넣어 병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튼튼히 하여 의료봉사수준을 높이고있는 것이다. 이곳의 로일꾼들은 얼마전에 급성심장염으로 내과에 입원하였던 참천리의 한 주민과 소아과에 뇌막염으로 입원하였던 한 어린이를 완치시켜 회신 시킨것을 비롯하여 올해 들어와서도 적지 않은 치료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도 이곳 로일꾼들은 병원에 갓든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깊이 전해가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빛내기 위한 사업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오철 룡

본사기자 오철 룡

크나큰 축복을 받은 공로자들

【평양 4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흔번째 생일을 맞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지도교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원일, 천진기 수남구역 수남소학교 교장 인민교원 박광희와 덕천시 운흥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서석훈에게 생일상을 보내시었다.

막별이군의 가정에서 출생한 김원일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신 교육제도의 혜택속에 마음껏 공부하고 46년간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후대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 헌신

하였다.

또한 오랜 기간 직의강연 강사로 활동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널리 해설하고 그들의 마음을 당정책판철에 불리없이 만들었다.

박광희는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지난 40여년간 교육부문에서 성실히 일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시는 직업적명예의 값 높은 칭호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남소학교를 3중영학의 붉은 기학교, 2중보통학교로 꾸리는데 기여하였으며 오늘날도 새 세대들을 선군조선

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키우는 사업에 모든것을 바치고있다.

충훈일꾼으로 오래동안 일해 온 서석훈도 당과 수령의 은덕을 잊지 않고 50년간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적극 노력하였으며 운흥협을 일하게 되고 살고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보존으로 꾸리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생일상을 받아안은 김원일, 박광희, 서석훈과 가족, 친척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부강조국건설에 한몸 다 바쳐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변함없이 이어가는 원군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이어가는 원군길, 이것은 30여년동안인 인민군인들을 위해 지성을 바친 2중3대혁명붉은기 만경대구역합성식당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생활이다.

천리방선의 인민군인들을 찾고 또 찾아주시며 병사들에게 친어머니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지난 기간 원군사업에 열거하게 버려온 그들이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력형성, 간고분투의 혁명정

신을 발휘하여 자재의 힘으로 원로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주민들에 대한 봉사사업을 잘 하면서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

총대가 강해야 나라가 굳건하고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 것을 심장깊이 간직하였기에 박민철, 문은하동무들을 비롯한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벌려나가는 속에서 군대를 돕는것을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온갖 지성을 다 하고있다.

원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망심과 의리로 받드는 길이며 최대의 애국이다.

이런 자각을 안고 이들은 오늘날도 조국의 방편을 지켜가는 인민군인들을 위해 뜨거운 지성을 바쳐가고있다.

애국헌신의 길에서 인생의 보람을 느낄 줄 아는 이런 참된 인민들이 있어 총대가 더욱 굳건해지고 선군조선의 자랑인 군민대단결이 더욱 철통같이 다져지는 것이다.

글 및 사진 리진 명

로씨야수산대표단 귀국

【평양 4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안드레이 크라이나 로씨야러방 수산총국

비행장에서 김구락 수산성 부상과 알레키 후비닌 주조로씨야러방 특명전대사가 전송하였다.

엘더즈대표단이 떠나갔다

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리호철 외무성

나라의 귀중한 약초자원을

약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나라의 약초자원을 늘이는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의 학인 고려의학의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보장시켜나가기 위한 차도는 애국사업이다.

몇해전 12월, 약초재배월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데서 약초재배도 문제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4월초 강계고려약공장을 찾으면서 다시금 약초재배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끝없는 심혈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승인과 뜻을 받들고 보건의 일꾼들이 4, 5월 약초재배월간사업에서 성과를 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약초를 널리 재배하는 것과 함께 약초채취사업은 균중적응동으로 적극 벌리며 약초자원보호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약초재배를 균중적응동으로 활발히

각 지방들과 근로자들

약초의 종류별특성에 따라 적지를 바로 선정하고 씨뿌리기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것은 불철약초재배월간에 중요하게 들어있고나아가 할 사업이다.

보건의 일꾼들은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에 이르러가지 약초재배월간지휘부를 조직한데 이어 사업의 성과적 실현을 위한 작전을 짜고들고 실거를 뚜렷하게 벌리고있다.

보경, 농업, 국토관리, 도시경관부문을 비롯한 관련부서 일꾼들과 긴밀한 협동작전의 결과 많은 단위들이 지난 시기에 비하여 약초재배에서 전례없는 실적을 내고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전문약초재배단위인 시, 군, 도약공장과 약초관리소, 도약초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백지, 시호를 비롯한 수십가지의 약초씨뿌리기를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5월초에 심겨 될 약초들에 대한 모판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환경남도, 함경북도의 협동재배단위에서는 올해의 농업생산으로 드마쁜 속에서도 계획된 면적의 약초씨뿌리기를 하루도 드림이 없이 실속있게 보장하고있다. 이와 함께 유기농법의 요구대로 질 좋은 자급비료, 흙보살비료를 밭에 내기 위한 사업이 전국의 많은 약초재배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산골 갯길, 군데에서 수백점보의 약초산에서 조성하는것은 더 많은 약초재배를 위해 내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보건의 일꾼들의 지도방조속에서, 군데에서는 수백점보의 약초산확보를 위해달라지 끝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천진시, 김책시, 연사군, 청원군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많은 시, 군데에서는 이미 수백점보의 약초산조성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약초를 짧은 기간에 해결

기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달성되고있다.

지난 시기 전국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온 만경대지구약초관리소와 상원약초농장, 천리마고려약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올해에도 지향, 오미자, 단삼을 조직배양의 방법으로 훌륭히 키워 밭에 심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하고있다. 또한 린산약초농장, 선천군약초관리소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단위에서 조직배양 실적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마다달것에서 다그치고있다.

겨울나를 위해 제때에 정확히 위한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천재군, 고산군약초관리소들에서는 수매원들의 열혈을 높여 그들이 군인의 기관, 기업소들에 내려가 약초를 희실없이 거두어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보건성에서 비롯된 각지의 해당 부문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약초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섬으로써 약초재배월간사업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방정 찬

군적인 사업으로 들어주고

북청군 인민위원회

북청군에서 의약품생산의 기본원료인 약초를 재배하고 거두어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누구나 깨끗한 람심을 가지고 약초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남새와 알곡작물과 마찬가지로 약초재배도 시기를 놓치면 좋은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북청군인민위원회의 일꾼들은 인민들은 조직사업으로 불철약초재배월간사업의 첫시작부터 성과를 올리고있다.

일꾼들은 척박한 땅이나 밭두렁, 강기습대에 약초를 많이 심는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지난 3월 군안의 지형을 충분히 료해한데 기초하여 구체적

우 리 인 민 보 안 원 들

이들은 여러차례 공장을 찾는 과정에 중요한 일터에서 혁신자로 일하고있는 제대군관들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조국보위소에서 위훈을 펼쳐가던 그 시절로 밤낮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가고있다는 사실이 인민보안원들을 감동시켰다. 그후 이곳 인민보안원들은 제대군관들의 가정들을 방문하고 적극 도와주기 위한 구체적

조건을 잘 보장해주어

선교구역에서

선교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약초재배를 잘 하고있다.

구역인민위원회의 일꾼들은 지난 3월 현지에 내려가 해당 단위 일꾼들과의 면담에 구내의 빈방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렸다.

이와 함께 그들은 구역 약초재배소일꾼들과 짜고들어 공장, 기업소들에 좋은 약초재배를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있게 내밀었다.

지난 시기 많은 약초들을 수확하여 나라의 의약품생산에 이바지한 평안신발기공장의 일꾼들은 올해의 약초재배에서도 앞장설 불라는 열의를 안고 건투적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신발제작에

필요한 부속용생산으로 바

필요한 부속용생산으로 바쁜 조건에서도 구내에 심을 여러가지 약초재배를 확보한데 이어 발판리에 힘을 냈고있다.

불철약초재배월간을 맞은 평양방직공장, 선교직물공장을 비롯한 다른 단위들에서도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빛내어갈 마음으로 울려부르짖을 비탄한 여러차례 정성껏 심은 여러종의 약초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간직하고있다.

이밖에도 장총 1동, 무진 1동을 비롯한 구역안의 모든 동, 인민민들에서도 약초를 재배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본사기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그들을 힘껏 도와나섰다.

이런 인민보안원들을 대할 때면 제대군관들은 감동에 젖어 그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인민보안원동무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대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겠습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민족의 태양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차넘치고 있다. 오늘 남북겨레들은 오직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셨으며 그 길에서 력사에 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의 이인위권의 거룩한 생애를 한없이 경건한 심정으로 되새겨 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집에 찾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처럼 이인위권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셨으로써 세인의 절대적인 경모와 칭송을 받으신 위인은 동서고금을 엮어도 길이 빛날 것이다.》

제주도의 한 주민은 집에 찾아온 이웃들과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보충하였다.

《김일성주석님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당대에 한 나라, 한 민족을 진보와 번영의 높은 명마루에 올려세우신 위인은 없었다. 이인위권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그런 수령, 그런 령도자는 세상에 오직 한분 김일성주석님뿐이다.》

남녘인민들의 가슴마디에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과 고향을 같이하고 인민의 행복속에서 기쁨을 찾으신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뜨겁게 간직되어 있다.

남조선의 한 주민은 《빛나는 태양상》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낸 글에서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니 자꾸만 추시는 눈물을 금할수 없다. 세상을 향해 환하게 웃으시는 자애로운 영상, 해빛같은 미소를 보내시는 그 영상은 분명 태양상이다. 일생을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민족의 아버지 김일성주석님, 우리라면 우리들수록 주석님께서 쌓으신 위대한 업적이 헤아려지고 지대로는 그 사람이 못 견디게 그리워 보고 또 보게 되는 그의 영상이다.》

그분께서는 이인위권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민족과 고향을 같이하고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것을 략으로 여기셨다. 그분께서 우리 민족과 인류를 위해 쌓으신 업적을 어찌 말로 따로 다 해야할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그이를 영원한 태양으로, 아버지로 하여 모시고 받들려는 순결한 마음은 어느 한두사람의 가슴속에만 간직되어있는것이 아니다. 우리의 민족사에 김일성주석님과 같이 출중하신분은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분을 통일조국의 주석님으로 모시고 살아보지 못한것이 한스럽다고 자기의 안락가운을 토로한 부산의 한 력사학자요,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로고에는 자기를 대한 그의 심리가 숨어있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적신 대전의 한 노인이었다.

동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통일업에 헌신 분투하신 그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할것이라는 확신을 토로한 광주 대학생들...

연제인의 한 출판물에는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은 민족의 행복을 위한 로고로 이어졌고 그분의 존함은 민족의 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으니 주석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 위대한 수령, 영광과 행복의 빛나는 상징으로 민족의 심장속에 영원 불멸하시겠다.》라는 글이 실려 남조선인민들을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인류력사에 이름을 남긴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숭고한 인덕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신혈을 다 바치셨고 그런 인민의 아버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한평생 인민행렬차에 오르시여 이 땅위에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위대한 전설을 수놓아오신 아버지수령님,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신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가주시려고 걸으신 길을 그 얼마미만 지새우신 밤은 또 얼마미만인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모두를 환복에 안아 행복과 번영에 이끌러오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팔같이 우러러따르는 남녘의 뜨거운 민심의 불꽃인 양 남북땅 곳곳에서는 수령님 반공, 반북교육을 받으며 자

란 우리들이 김일성주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것이이며 이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김일성주석님의 숭고한 혁명생애, 민족애와 인간애의 력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조선의 한 종교인은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은 민족을 위한 로고로 이어졌고 그분의 존함은 민족의 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으니 주석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 위대한 수령, 영광과 행복의 빛나는 상징으로 민족의 심장속에 영원 불멸하시겠다.》라는 글이 실려 남조선인민들을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인류력사에 이름을 남긴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숭고한 인덕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신혈을 다 바치셨고 그런 인민의 아버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한평생 인민행렬차에 오르시여 이 땅위에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위대한 전설을 수놓아오신 아버지수령님,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신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가주시려고 걸으신 길을 그 얼마미만 지새우신 밤은 또 얼마미만인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모두를 환복에 안아 행복과 번영에 이끌러오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팔같이 우러러따르는 남녘의 뜨거운 민심의 불꽃인 양 남북땅 곳곳에서는 수령님 반공, 반북교육을 받으며 자

란 우리들이 김일성주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것이이며 이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김일성주석님의 숭고한 혁명생애, 민족애와 인간애의 력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조선의 한 종교인은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은 민족을 위한 로고로 이어졌고 그분의 존함은 민족의 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으니 주석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 위대한 수령, 영광과 행복의 빛나는 상징으로 민족의 심장속에 영원 불멸하시겠다.》라는 글이 실려 남조선인민들을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인류력사에 이름을 남긴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숭고한 인덕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신혈을 다 바치셨고 그런 인민의 아버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한평생 인민행렬차에 오르시여 이 땅위에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위대한 전설을 수놓아오신 아버지수령님,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신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가주시려고 걸으신 길을 그 얼마미만 지새우신 밤은 또 얼마미만인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모두를 환복에 안아 행복과 번영에 이끌러오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팔같이 우러러따르는 남녘의 뜨거운 민심의 불꽃인 양 남북땅 곳곳에서는 수령님 반공, 반북교육을 받으며 자

이 땅위에 민족분열의 위험이 걸여가던 주제 37 (1948)년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의 통일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위하여 민족분열행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통일애국의 기치하에 민족대단결을 일으키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력사적인 남북연석회의를 친히 발기하시고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도록 하시었다.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을 초월하는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이 담긴 초대장은 한성을 반공으로 살아온 환고한 민족주의자인 김주기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다. 당시 김구는 민족분열의 위기가 눈앞에 닥친 실정에서 애국애족이라는 공명성에 기초하여 서로 손잡아야 할 서명장을 걸감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공산주의자를 미워한것만큼 그들을 자신을 배척할것이라는 위심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김구의 편박을 만나신 자리에서 지난날의 일은 다 백지화한다고 하시며 김구의 위기를 풀어주시었다.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자는 이 마당에서 구태여 지난 일을 가지고 시야를 아하는 것은 큰일을 그르치게 하는 잘못한 태도라고 하시면서 파

기불문의 원칙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확립된 전통이라는것을 명백히 알려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아량은 포용력과 대해같은 민을맞이해 주는 데이상 말할일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4월남북연석회의의참가를 내외에 정식 공포하였으며 걸음걸음 막아서는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평양으로 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구를 몸소 만나시고 그의 애국적장기를 높이 평가해주셨을뿐 아니라 그를 련석회의 주석단장으로 내세워주시고 주석까지하도록 해주셨었다.

통일애국을 지향하는 전체조선인민의 대표들이 모인 이 력사적인 회의에 참가하도록 해주시고 자기를 그토록 믿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김구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통일애국의 일념으로 차넘치는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는 그의 심금을 울렸다.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당국적인 《단독선거》를 거부해야 하며 이 거족적인 투쟁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파와 종교의 소속, 정치적경색을 가리지 말고 단결하여야 한다는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그에게 있어서 어길수 없는 력사의 진리로 가슴깊이 새겨졌다.

김구가 평양에 체류한 기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결출한 명도력, 숭고한 인덕에 완전히 매혹된 그는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호모하면서 반공으로부터 평양으로 국적인 인생 전환을 하게 되었다.

하기에 그는 평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수령님을 만나

는 자리에서 《공산주의에 대하여 그토록 생각했던 이 늙은것들을 이렇게 믿어주시고 신변까지 걱정해주시니 우리들은 이제 죽어 진토가 될까 걱정이 없었습니다. 나는 미국놈들의 박해와 위협이 아무리 모질다고 해도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거기에 편공합작을 이룩하겠습니다.》라고 감사와 결의의 말씀을 드리었다. 그리고는 숙연한 자세로 《장군님, 마지막으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라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나서 목적인 함을 그이앞에 내놓았다.

《상해협시정부》인정이었다. 그것은 《림시정부》의 범법을 상정하는것으로서 상해에서 머나먼 중경에서의 피난길에서도 그리고 귀국의 수천리길에서도 그가 애지중지 품고다닌 《옥새》였다. 그것을 제 손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겠다는것이였다.

자기 온몸을 통째로 끌어당긴 민족의 명수, 절세의 위인께 자신의 운명을 다 맡기겠다는 인생전환의 결심을 품고 그런 결단을 내린것이였다.

한성을 반공으로 살아온 한 민족주의자가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넋까지 아버지수령님께 맡기겠다는 마음담아 정중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그에게 있어서 어길수 없는 력사의 진리로 가슴깊이 새겨졌다. 여기에 그는 평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수령님을 만나

블레쥬 《통일》 4월호 발행

국제공로인 통일연합회가 블레쥬 《통일》 4월호를 발행하였다.

블레쥬는 태양절특별판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모시고 《김일성주석의 선견지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제시의 공장들을 현지지도 하신 소식을 블레쥬는 편집하

는 선견지명으로 조국과 인민을 이끄신데 대해 서술하였다.

블레쥬는 《태양절 기념일들에 대한 제국의 사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조선인민군은 오늘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령도에 의해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위용될치고있다고 게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제시의 공장들을 현지지도 하신 소식을 블레쥬는 편집하

반공화국대결기도의 발로

얼마전 청와대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라는자가 어느 한 모임에 나타나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된다면 현실을 두고 《현 상황이 중요하것이 아니라 더더로 가기 위한 상황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떠벌었다.

하마면 남조선당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은 과연 어디겠는가.

이날 이지는 《천안》호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사파》와 《비핵화》를 대화제개를 위한 《문턱으로 제시》한다는지, 지난 3년간이 그 무슨 《에네르기추적과정》이고 한당국의 《대북정책》이 《통일 가는 길을 닦는 길》이라는니 하는 열도당도않은 주장을 늘어놓았다.

《천안》호사건과 연평도사건이 남조선당국의 불순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산물이라는것은 이미 명백해졌다. 그런것으로 하여 얼마전 우리 국방위원회 결정안은 대변인담화를 통하여 문제의 사정들을 더이상 우리와 련계시키지 말며 남조선당국이 사건들을 들고대결정책을 고집하지 말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라는자가 문제의 사건들을 거들며 《신사와 후대화》문을 모다시 들고나온것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수 없다.

핵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핵문제는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정시행에서 하나의 주대장으로 서여왔다.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핵문제를 거들면서 북남관계의 악화를 계속 부채질해왔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청와대의 외교안보담당자가 이번엔 그 대결보따리를 북남관계의 《문턱》이라고 민족앞에 뻗는것을 펼쳐놓은것이였다. 이는는 이날 《정부》가 지난 3년동안 북남관계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라는 질문에 판소리를 늘어놓으면서 현 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려는 파멸적인 말발까지 서슴없이 내뻗었다. 그러면서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한 지난 3년간이 그 무슨 《에네르기추적과정》이라는니, 《통일 가는 길을 닦는 길》이라는니 하는 따위의 피이한 나발까지 붙여냈다. 파국에 처한 북남

관계가 《에네르기추적과정》이고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길》이라면 보수집권세력이 추구하는 북남관계, 통일이란 과연 어떤것인가. 그것은 대결과 파국의 추적과정이고 나아가서 북남관계를 지난 시기보다 더 엄중한 사태, 예측할수 없는 충돌로 몰아가는 길이다. 결국 정와 대 외교안보담당자가 북남관계개선의 《문턱》에 대해 떠벌인것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대결의 장벽을 더 높이 쌓아놓고 우리를 해칠 칼을 버리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와 다른것이다.

문제는 현 당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작성담당한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발언이라는것으로 하여 그것이 북남관계의 정배와 관련된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판변하고있다는 그 점이다. 최근 통일부제기자들이 북남대화에서 북남관계개선을 마구 늘어놓는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었다.

현인력적으로 비롯한 통일부대당은 지금 말파다. 《진정성있는 대결》과 그 무슨 《사파》에 대하여 떠벌어대면서 북남관계개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화해협력사업에

발장을 지르는 등으로 반통일대결책동에 그 어느때보다 열을 올리고있다. 얼마전 통일부 차관이라는자가 그 누구의 《인권》이니, 《자유》니 하는 꾀변을 늘어놓은것은 그 한 실례이다.

이제는 그 무슨 강연이라는 데서 역겹기 짝이 없는 《통일》에 대해 대담하게 뛰어 넘어야 하며 당면하게는 불신과 대결에 초치한다는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절박하다. 이 엄중한 현실은 외면하고 동면시각이 그 무슨 《인권》과 《자유》에 대해 운운한 속신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통일부제기자들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허황하기 짝이 없는 《세계통일》 야망을 집요하게 꿈꾸고있으며 북남관계개신을 마구 늘어놓는것을 보며 우리를 넘보면서 불순한 기도를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

는 자리에서 《공산주의에 대하여 그토록 생각했던 이 늙은것들을 이렇게 믿어주시고 신변까지 걱정해주시니 우리들은 이제 죽어 진토가 될까 걱정이 없었습니다. 나는 미국놈들의 박해와 위협이 아무리 모질다고 해도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거기에 편공합작을 이룩하겠습니다.》라고 감사와 결의의 말씀을 드리었다. 그리고는 숙연한 자세로 《장군님, 마지막으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라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나서 목적인 함을 그이앞에 내놓았다.

《상해협시정부》인정이었다. 그것은 《림시정부》의 범법을 상정하는것으로서 상해에서 머나먼 중경에서의 피난길에서도 그리고 귀국의 수천리길에서도 그가 애지중지 품고다닌 《옥새》였다. 그것을 제 손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겠다는것이였다.

자기 온몸을 통째로 끌어당긴 민족의 명수, 절세의 위인께 자신의 운명을 다 맡기겠다는 인생전환의 결심을 품고 그런 결단을 내린것이였다.

한성을 반공으로 살아온 한 민족주의자가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넋까지 아버지수령님께 맡기겠다는 마음담아 정중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그에게 있어서 어길수 없는 력사의 진리로 가슴깊이 새겨졌다. 여기에 그는 평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수령님을 만나

반통일분자의 퇴진을 요구하여 시위

조국통일범민족협 남측본부 성원들이 얼마전 서울의 《정부》종합청사앞에서 피피통일부 장관 현인택의 퇴진을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였다.

시위참가자들은 현인택이 반공화국대결정책에 매달려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며 통일을 가로막아나서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자가 장관으로 있는 한 남북 대화는 이루어질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협 남측본부 성원들이 얼마전 서울의 《정부》종합청사앞에서 피피통일부 장관 현인택의 퇴진을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였다.

시위참가자들은 현인택이 반공화국대결정책에 매달려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며 통일을 가로막아나서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자가 장관으로 있는 한 남북 대화는 이루어질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방사성물질 검출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 전지역의 12개 관측소에 극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

방사성물질은 11개 관측소에서 검출되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방사성물질 검출에 위반되는것이 없음을판단해 공화국법과 국제법, 국제관계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엔 금강산관광이 현실적으로 파관시켜 북남관계를 결판내리는 흥심박에 맞섰다. 이런자들이 금강산관광사업이 풍지박산난 오늘에 와서 주체법칙 《합의위반》이니 뭐니 하면서 회피해 늘어놓는것은 파멸적이 짝이 없는 당몽이 아닐수 없다.

《합의위반》자는 다음이 남조선당국이다.

우리 공화국의 대외경제계약법 제28조에는 계약위반에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입는 경우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다에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정하였으나 그 기간에 리행하지 못한 경우 합의를 취소하게 되어 있다. 또한 공화국민법 제96조에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그것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국제법과 국제관계법 보아도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계약상의무 리행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놓고보면 이번엔 우리가 원한 조치는 사업당사자간 및 북남

관계가 《에네르기추적과정》이고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길》이라면 보수집권세력이 추구하는 북남관계, 통일이란 과연 어떤것인가. 그것은 대결과 파국의 추적과정이고 나아가서 북남관계를 지난 시기보다 더 엄중한 사태, 예측할수 없는 충돌로 몰아가는 길이다. 결국 정와 대 외교안보담당자가 북남관계개선의 《문턱》에 대해 떠벌인것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대결의 장벽을 더 높이 쌓아놓고 우리를 해칠 칼을 버리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와 다른것이다.

문제는 현 당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작성담당한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발언이라는것으로 하여 그것이 북남관계의 정배와 관련된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판변하고있다는 그 점이다. 최근 통일부제기자들이 북남대화에서 북남관계개선을 마구 늘어놓는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었다.

현인력적으로 비롯한 통일부대당은 지금 말파다. 《진정성있는 대결》과 그 무슨 《사파》에 대하여 떠벌어대면서 북남관계개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화해협력사업에

발장을 지르는 등으로 반통일대결책동에 그 어느때보다 열을 올리고있다. 얼마전 통일부 차관이라는자가 그 누구의 《인권》이니, 《자유》니 하는 꾀변을 늘어놓은것은 그 한 실례이다.

이제는 그 무슨 강연이라는 데서 역겹기 짝이 없는 《통일》에 대해 대담하게 뛰어 넘어야 하며 당면하게는 불신과 대결에 초치한다는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절박하다. 이 엄중한 현실은 외면하고 동면시각이 그 무슨 《인권》과 《자유》에 대해 운운한 속신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통일부제기자들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허황하기 짝이 없는 《세계통일》 야망을 집요하게 꿈꾸고있으며 북남관계개신을 마구 늘어놓는것을 보며 우리를 넘보면서 불순한 기도를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

는 자리에서 《공산주의에 대하여 그토록 생각했던 이 늙은것들을 이렇게 믿어주시고 신변까지 걱정해주시니 우리들은 이제 죽어 진토가 될까 걱정이 없었습니다. 나는 미국놈들의 박해와 위협이 아무리 모질다고 해도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거기에 편공합작을 이룩하겠습니다.》라고 감사와 결의의 말씀을 드리었다. 그리고는 숙연한 자세로 《장군님, 마지막으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라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나서 목적인 함을 그이앞에 내놓았다.

《상해협시정부》인정이었다. 그것은 《림시정부》의 범법을 상정하는것으로서 상해에서 머나먼 중경에서의 피난길에서도 그리고 귀국의 수천리길에서도 그가 애지중지 품고다닌 《옥새》였다. 그것을 제 손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겠다는것이였다.

자기 온몸을 통째로 끌어당긴 민족의 명수, 절세의 위인께 자신의 운명을 다 맡기겠다는 인생전환의 결심을 품고 그런 결단을 내린것이였다.

한성을 반공으로 살아온 한 민족주의자가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넋까지 아버지수령님께 맡기겠다는 마음담아 정중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그에게 있어서 어길수 없는 력사의 진리로 가슴깊이 새겨졌다. 여기에 그는 평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수령님을 만나

력사와 민족은 용서치 않을것이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협력을 도모하

우리의 넓은 도량과 아량으로 하여 금강산관광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도모하며 북남관계발전의 기초로, 상징으로 되었다. 6. 15이후 금강산에서 북남상규회담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야담 부분별실무접촉들,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고 반세기 이상 갈라져 생사여부조차 몰랐던 북과 남의 가족, 친척들이 서로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고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준것도 금강산을 화해협력지대로 만들어놓은 우리의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동포애적인 성의의 표시라는 내외가 공인하고있는 사실이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은 금강산관광사업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집권전부터 《한나라당》패들은 북남관계발전을 눈으로 간사치며면하면서 《금강산관광은 북에 군자금대주기》라는 허는파의 악담을 퍼부으며 관광준비를 제정해나섰다. 2000년 북남합의서가 발표되고 북남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되는 속에 금강산관광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요구가 날을 따라 높아가자 이에 당황해던 보수세력은 2002년 10월에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한 기회를 리용하여 금강산관광을 지원하기로 한 《남

북협력기금》사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그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면중단시켰다. 2003년에는 그 무슨 《대북총공의족》이라는것을 가지고 《특검법》까지 조작하여 북남협력과 금강산관광의 길을 개척한 기업가들을 죽음에 몰아가까지 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을 반대해나선 역적배당의 책동은 권력을 차지한 후 더욱 중요하고도 악랄하게 감행되었다. 현 보수집권세력은 《북은 변하지 않았다.》느니, 《섬겨바치기》니 뭐니 하며 금강산관광사업을 극구 방해해나섰다. 보수세력이 얼마나 북남협력사업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금강산관광사업에 행방을 놓았으며 어느 한 의의인지도 《현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북남협력합의를 전면거부하였다.》고 회고하였는가.

중공에 대한 앙심을 품고 기 회만을 노린 보수세당은 지난 2008년 그들의 불찰로 일어난 관광객사건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10년동안 이어져 오던 관광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그후 우리가 동포애의 견지에서 금강산관광객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 풀어주면서 아량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결의에 《위반》된다느니, 《3대조건》이니 뭐니 하며 관광객을 완강히 거부해나섰다.

당국간 합의에 위반되는것이 없음을판단해 공화국법과 국제법, 국제관계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엔 금강산관광이 현실적으로 파관시켜 북남관계를 결판내리는 흥심박에 맞섰다. 이런자들이 금강산관광사업이 풍지박산난 오늘에 와서 주체법칙 《합의위반》이니 뭐니 하면서 회피해 늘어놓는것은 파멸적이 짝이 없는 당몽이 아닐수 없다.

《합의위반》자는 다음이 남조선당국이다.

우리 공화국의 대외경제계약법 제28조에는 계약위반에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입는 경우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다에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정하였으나 그 기간에 리행하지 못한 경우 합의를 취소하게 되어 있다. 또한 공화국민법 제96조에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그것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국제법과 국제관계법 보아도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계약상의무 리행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놓고보면 이번엔 우리가 원한 조치는 사업당사자간 및 북남

로 조 단체들 공동시국선언 발표

남조선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합체 4. 19인민봉기 관련 증언자료 새로 공개

남조선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합체 4. 19인민봉기 관련 증언자료 새로 공개

남조선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합체 4. 19인민봉기 관련 증언자료 새로 공개

병을 옮기는 의사들

25일 남조선 《MBC》방송이 남조선에서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으러려 병을 옮기는 역할을 하고있다고 전하였다.

한 대학병원의 의사들의 손전화기들을 검사한 결과 각종 독을 일으키는 포도알균을 비롯한 각종 균류들이 발견되었다.

대우 심각한것은 손전화기들에서 거의 모든 항생제에 견디어내는 악성세균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균들은 의사들이 입고있는 위생복에도 잘 번져나온다. 【조선중앙통신】

당국인민 언론 장악 조처 동원

당국인민 언론 장악 조처 동원

당국인민 언론 장악 조처 동원

당국인민 언론 장악 조처 동원



당국인민 언론 장악 조처 동원

